opusdei.org

소명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

하느님의 부름심은 집단적인 부름이 아닙니다. 그것은 하느 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름 입니다.

2025-6-9

소명을 알게 하는 자동 관문이 있습 니다. 하느님의 부름심은 집단적인 부름이 아닙니다.

그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름입니다.

오푸스데이를 만난 후,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느님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

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이제 제 삶은 작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. 교회에 가서, 친구들 과 함께 있어, 학교 가요...

하지만 한 삶은 다른 갊의 일부가 아 닙니다.

그래서 부르심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 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omyeongeun-jega-haneunimyi-janyeoroseo-haneun-modeun-geoseul-hanaro-mandeuleo-jueossseubnida/(2025-12-15)